전통 강원 방식 한문 강좌 열린다

'탄허 강숙' 3월 13일부터

강원 전통 방식으로 경전을 강독하는 강좌가 마련된다.

오대산 월정사(주지 정념)는 오는 3월 13일부터 6월 29일까지 총 16주 동안 두산위브 파빌리온 634호에서 2017년 탄허 강숙(呑虛講塾) 강좌를 진행한다.

강의 방식은 한문 불전 원전 독해로 이번 강좌에서는 〈벽암록〉을 비롯해 〈대승기신론〉, 〈원각경〉, 〈서장(書狀)〉에 대한 강독을 진행한다.

강사로는 前 동화사 강사 대진 스님을 비롯해 석지현, 은정희 前 서울교대 교수, 이상하 한국고전번역원 교수가 참여한다.

수강 접수는 2월 13일~ 3월 10일이며, 과목당 15~20명만 받는다. 수강료는 1과목당 20만원이며, 전과목을 수강할 경우 50만원이다. 교재비는 별도.

접수 방법은 도서출판 민족사 홈페이지(http://www.minjoksa.org)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은 후 이메일(minjoksabook@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월정사는 "원전 강의로서 한문 독해 실력을 높여 한문 불전을 번역할 수 있는 불교 인재를 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02)732-2403 **신성민 기자**

경영·사찰음식·언론 등 융합적 주제 '강세'

동국대, 상반기 석·박사 논문 살펴보니

현대 경영학 문제와 해법을
초기불교 경영 사상서 찾아
공리주의로 원효 사상 조명

사찰음식 관련 석사논문 봇물
불교계 언론 분석한 논문도

동국대는 2월 16일 상반기 졸업식을 개최했다. 이날 졸업식을 통해 학사 2,005명, 석사 530명, 박사 102명 등 총 2,637명이 학위를 취득했다. 이중 불교관련 논문을 통해 학위를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43명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 석·박사 학위 논문들은 경영학과 서양 윤리학 비교 연구를 비롯해 사찰음식, 언론학 등 융합적 주제가 강세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장성우(불교학과) 씨는 박사학위 논문 〈초기불교 경영사상 연구〉를 통해 현대 경영학의 문제점에 대한 해법으로 초기불교 경영사상을 주목했다. 장 씨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윤리경영과 인간의 영적인 가치를 인정하는 영성(靈性) 기업의 한계를 규명하고, 대안으로 초기불교의 경영사상을 고찰했다.

초기불교시대 인도는 경제대국으로, 이 시대 초기불교는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개인주의를 성숙시키는 가르침으로 건전한 사유재산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도하고 있음을 정 씨는 주목했다.

또한, 재화의 사회회향 과정에서 사무량심(四無量心)의 수행과 함께 연기법을 비롯한 제법(諸法)을 설하며 진정한 수행으로서의 경영을 지향했음을 강조했다.

장 씨는 "재물과 법에 대한 나눔이라는 과정은 열반을 위한 수행 과정인 동시에 건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과정이기도 했다"면서 "초기불교의 경영사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현대 경영사상이 가진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김근배(윤리문화학과) 씨는 박사학위 논문 〈원효윤리사상에 관한 연구〉를 통해 서양의 대표적 윤리 이론인 공리주의와 원효 스님의 사상과 윤리를 비교·분석했다. 김 씨는 원효 스님의 윤리와 공리주의가 '동체자비'에 맞닿아 있음을 주목하고, 이는 대승불교가 추구하는 이상임을 밝혔다. 다만, 벤담과 밀의 고전적 공리주의의 쾌락 개념을 피터 싱어의 '선호 공리주의'로 대체했다.

김 씨는 "싱어는 '이익 평등고려 원칙'을 윤리적 판단의 기초로 받아들인다"며 "불교적 사유 역시 모든 존재들은 불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생명존중사상으로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간과 동물들의 행복과 복지를 추구하고, 고통을 경감시킨다는 현실적 지침을 공유하는 불교 윤리와 공리주의는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도덕적 갈등을 풀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석사 학위에서는 사찰음식과 관련한 논문들이 4편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한수진(조리교육전공) 씨는 석사 학위 논문 〈사미·사미니 승려들의 식행동과 음식 기호도에 관한 연구〉를 통해 11개 승가대학의 사미·사미니 스님들의 식생활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분석했다.

한 씨는 "식생활이 불량한 상태는 아니었으나 과식과 칼슘, 단백질과 같은 불균형적 음식 섭취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비만과 위장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작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식사시간을 조정하고 표준식단 개발이 실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숙(조리전공) 씨의 석사학위 논문 〈총림사찰의 후원운영현황 및 하안거 기간의 식단평가〉는 조계종 8대 총림의 후원 관리 현황과 안거 기간 식단에 대한 영양을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밖에도 〈서울·경기지역 사찰음식 조리교육 수강생의 교육에 관한 인식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문은상, 조리교육전공)〉, 〈외식·조리 전공 대학생들의 사찰음식에 대한 인식과 대중화 방안 연구(허인준, 조리교육전공)〉 등도 석사학위 논문으로 발표됐다.

불교계 언론에 대한 논문도 있었다. 김주일 본지 편집국장은 신문방송학 석사학위 논문 〈한국불교 언론의 보도시스템에 관한 분석 연구〉를 통해 한국 불교 언론의 현황과 나아갈 방향 등을 모색했다.

김 국장은 현재 불교계 언론에 종사하고 72명의 기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한 전수 조사를 진행했고, 이를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70명의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불법홍포'를 불교 언론의 중심 기능으로 봤다. 또한 불교 언론의 게이트 키핑 과정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내부요인으로는 데스크와 언론관, 경영층 등의 순이었으며, 외부 요인은 종단과 취재원이 가장 높았다. 다만, 평기자들은 외부 영향력 행사 주체가 '없다'고 인식한 반면, 간부급 기자들은 '조계종 등 제종단'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불교계 언론 기자들은 저널리즘적 기능보다는 포교 기능을 우선한다"며 "그러면서도 불교계 기자들은 저널리즘적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교언론 윤리 강령을 제정하는 등 불교 포교와 언론의 비판 기능과 충돌할 때 어떻게 보도해야 하는지 일종의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니까야로 읽는 금강경 강의

근본불교硏 전반기 강좌

초기 경전을 통해 〈금강경〉을 해석하는 강좌가 열린다.

근본불교연구회는 3~6월까지 〈니까야로 읽는 금강경〉 저자인 이중표 전남대 교수를 초청해 전국에서 강의를 진행한다.

매주 2시간씩 총 32시간에 걸쳐 〈금강경〉 전문을 산스크리트 원문에 의거하여 진행되는 강의는 서울, 광주, 구례에서 이뤄진다. 교재는 이중표 교수의 저서〈니까야로 읽는 금강경(金剛經)〉이다.

서울 강의는 종로구 법련사에서 3월 11일부터 격주 토요일 오후 2~5시에, 광주 강의는 금남로불교교육원에서 3월 9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7~9시에, 구례 강의는 구례장애인복지회관에서 3월 18일부터 격주 토요일 2시~5시에 열린다. 수강료는 20만원이다.

서울: (010)3600-7890, 광주: (010)-3666-1953, 구례: (010)9052-8179

신성민 기자

"삼국유사, 불교문화 콘텐츠의 보고"

명계환 씨, 세불硏서 주장

〈삼국유사〉 전법서로의 역할
일연 스님 사상 정립 등 과제



세계불교학연구소는 2월 10일 '한국 불교학연구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월례발표회를 개최했다.

일연 스님이 저술한 〈삼국유사〉는 불교문화 콘텐츠의 보고이며, 이를 통한 스토리텔링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국대 일반대학원 불교학과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명계환 씨는 2월 10일 세계불교학연구소(소장 고영섭)가 주최한 '한국 불교학연구의 현황과 과제' 월례발표회에서 '한국 삼국유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불교적 과제를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삼국유사〉에 대한 학계 동향을 살핀 그는 〈삼국유사〉 연구의 불교학계의 과제로 △일연 스님의 불교사상 정립 △〈삼국유사〉에 대한 전법서로서의 이해와 고찰 △대안사서로서의 역할 모색 등을 제시했다.

100여 권의 일연 스님의 저술 중 〈삼국유사〉와 〈중편조동오위(重編曹洞五位)〉만이 연구가 이뤄지고 있음을 지적한 명 씨는 "일연 스님은 간화선과 조동선, 교학과 신앙, 승과 속이 일실(一實)의 가치가 평등하여 피차 분별없는 세계로 나아가고자 했다"면서 "현재 스님에 대한 불교사상 연구는 피상적 접근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

명 씨는 〈삼국유사〉의 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전법 서적 이해와 고찰'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실제, 〈삼국유사〉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불교와 관련된 기록들이다.

명 씨는 "〈삼국유사〉 '의해' 편에 나타난 일연 스님의 전법 인식은 우리 민족에게 자신은 '불성'으로서의 삶의 주체이며, 이를 능동적으로 실천하는 것이었다"고 밝히면서도 〈삼국유사〉를 완전한 전법서로 단정해 의미를 축소하는 것은 경계했다.

그는 "〈삼국유사〉는 소수 특정인이 읽어야 할 문헌이 아닌 우리 민족이 함께 알아야 할 민족의 시원과 자취를 담은 텍스트"라며 "굴절된 시각을 경계하며 〈삼국유사〉 전체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안 사서로서 역할 모색을 위해서는 하기 위해서 불교문화 콘텐츠 개발에 노력할 것을 명 씨는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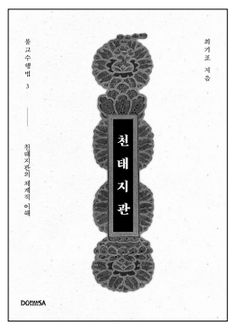
명 씨는 "〈삼국유사〉는 우리 현실의 삶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사선(斜線)들의 원형이 담겼고 인간 보편 문제가 서려 있기에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스토레텔링의 보물창고"라며 "〈삼국유사〉의 의미와 구조, 성격을 반영한 불교문화 콘텐츠 스토리텔링에 대한 연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동국대 불교학과 박사수료 동광 스님이 '한국 초기불교 연구의 현황과 과제' 등을 발표했다.

신성민 기자

천태지의 삼종지관 하나로 체계화

최기표 교수, 〈천태지관〉 발간… 명상 체계적 이해



명상 수행의 원류는 불교이며, 서구에서도 명상이란 거의 대부분 불교명상, 즉 선정(禪定)을 가리키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2,500여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수행자들을 통해 그 체계가 확립된 것이다. 명상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교의 선정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필수적이다.

최기표 금강대 불교문화학과 교수는 자신의 저서 〈천태지관〉을 통해 중국 남북조 시대에 천태종을 개창하고 국사로 존경 받은 고승 천태대사 지의(538~597) 스님이 저술하고 설한 지관수행의 지침을 체계적으로 풀어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천태 대사가 점차지관, 부정지관, 원돈지관의 삼종지관(三種止觀)으로 나누어 여러 책에서 설명한 지관 수행법을 하나로 체계화한 첫 시도라는 점이다. 최 교수는 〈마하지관〉, 〈석선바라밀차제법문〉, 〈육묘법문〉, 〈수습지관좌선법요〉 등을 중심으로 천태 대사의 지관 수행법을 체계적이며 이해하기 쉽게 기술했다.

이 책은 기존의 경전과 논서에 전해지는 여러 수행법과 천태대사가 고안한 독특한 행법을 함께 소개한다. 또한 각각의 수행법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아함부 경전과 아비달마 논서, 유식학 논서 등을 참조해 설명을 덧붙이고, 경전과 고승 전기 등에서 실제 수행 사례를 찾아 수행법이 실천되고 있는 양상도 소개하고 있다.

최 교수는 "이 책은 천태대사의 삼종지관 수행법을 하나로 체계화한 첫 시도"라며 "수행자들이 이 책의 내용과 자신의 수행경험을 비교해 보면 그 수행법에 대한 이론적 이해도 더욱 깊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해동율맥 제10대 법홍대율사 추모다례재

2017년 법홍문도회 총회 공고

해동의 청정율맥을 지키는 전국의 법홍 큰스님 은법제자 문도의 모임을 개최하여
아래 일자로 다함께 모시오니 두루 동참하여 자리 빛내주시길 초청합니다.

– 아 래 –

■ 일 시 : **2017년 3월 5일 일요일 (음, 2월 8일) 오전 10시**
■ 장 소 : 담양 용화사 대법당
■ 내 용 : 제 1부 – 법홍율사 추모다례재
제 2부 – 문도총회 (자유토론, 대중공사)
■ 문 의 : 061-381-2683 용화사 종무소
010-5061-8300 (총무위원 수군) / 010-8930-1785 (재무위원 수호)

문 장 : 제11대 守眞 율사
부 문 장 : 율맥 守法 존증사
자 문 : 율맥 守悟 존증사. 守覺 존증사 (원로)
전 문 : 율맥 守光 존증사. 守慧 존증사
위 원 장 : 율맥 守旺 존증사 / 부위원장 : 守月 존증사
위 원 : 율맥 守相. 守嶺. 守顯. 守山. 守安. 守君. 守護. 守雲. 守印. 守照. 守佑

재단법인 **율맥 용화사 대율원**
해동율맥 **법홍문도위원회** (대중일동)

종 도 모 집

문화관광부 허가 2009-2호 / 제2014-9호 / 등기번호 230121-0003919

(사)한국불교조계종승정원

종 정 승천 진성 대종사
총무원장 현문 현각

총무부원장 **석담 성우** 총무부장 **현인 보원** 교무부장 **자암 정오** 재무부장 **현경 대암**
호법부장 **현수 대선** 사회부장 **서법 자광** 포교부장 **관산 지륜** 비구니부장

불조의 혜명을 받들어 한국불교의 중흥을 위해 정진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승가의 길을 함께 가시고자 하시는
제방의 스님들과 인연있는 불제자님들을 모시고자 하오니 수희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입종서류 : 주민등록초본, 반명함판 사진 3장, 사찰(법당)사진
■ 문 의 : 총무원 – 인천 서구 가정동 494-26 원각사
전화 032)578-2122. 010-5002-7392(총무원장)

(사)한국불교조계종승정원 총 무 원